



육군2군단 예하 7사단 불사조연대 장병들이 지난 23일 강원도 화천 인근 중·동부전선에서 진행한 ‘월동 유류 공중수송작전’ 중 수령한 유류 드럼을 임시 야적장으로 옮기고 있다.

이경원 기자

격오지 부대 겨울철 대비 유류 첫 보급 ‘빈틈없이’

육군2군단, 전방지역 항공수송작전 시누크 헬기 투입 단시간 내 완벽 공수

육군2군단은 지난 20일과 23일 중·동부전선을 지키는 강원도 최전방 일반전초(GOP)와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육군부대 중 올해 첫 헬기를 이용한 ‘월동 유류 공중수송작전’을 실시했다.

이번 작전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시누크(CH-47) 헬기를 투입해 차량 수송이 힘든 최전방 부대에 대해 유류를 제때 안전

하게 보급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누크 헬기가 총 15소티(sortie·항공기 한 대가 임무수행을 완료한 횟수)를 운항해 360드럼의 유류를 해발 1000m가 넘는 적근산·백암산 정상 헬기장에 안착시켰다.

차량 수송은 고지 정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소량을 운반해야 하기에 작전시간이 길어진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감안해 군단은 항공수송으로 짧은 시간 내에 유류 보급작전을 완료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화천지역에서 대민접촉을

최소화해 방역에도 기여했다.

헬기로 유류 드럼이 공수되자 부대 장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유류고에 물자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혹한의 추위에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군단은 작전 중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작업자들은 절연장갑을 착용해 헬기 내 전류로 생길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했으며 이륙 전 화물결박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수송 도중 화물이 풀리지 않도록 했다.

헬기공수를 위한 사전 준비도 완벽하게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의 작전을 위해 상급부대와 긴밀한 협의 및 승인 아래 작전을 수행했다. 사전에 유류 드럼을 포장해 헬기가 제시간에 원활히 적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승욱(중령) 육군8281부대장은 “유류 공수에 힘써준 관계자들 덕분에 전방에서 근무하는 병력이 이번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됐다”며 “동계에도 빈틈없이 완전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현영 기자

“우수 전역 장병에 힘 보탬니다” 해군7기동전단-하이프라자 업무협약

국민 안전 최우선... 재난 현장대응능력 향상



지난 22일 해군7기동전단 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7전단과 (주)하이프라자의 업무협약식에서 윤종준(오른쪽) 7전단장과 하이프라자 배형진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해군7기동전단(7전단)은 지난 2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주)하이프라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윤종준 7전단장, 하이프라자 배형진 상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역예정 장병 대상 채용설명회 제공 및 우수인력 지원, 하이프라자 임직원 안보교육, 장병·군 가족 대상 가전제품 할인 등에 협력하기로 손을 잡았다.

윤 7전단장은 “하이프라자와의 협약을 통해 우수한 전역 장병들이 국가와 기업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수 기자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관·군 합동 야외기동훈련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는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2일 유관 기관과 함께 재난구조부대 야외기동훈련(FTX)을 했다.

주둔지 일대에서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을 묘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독수리부대 재난구조부대를 비롯해 서울강서구청·소방서·경찰서·보건소, 대한적십자사, 한국전력, KT 등 7개 유관 기관이 참가했다.

지진으로 인한 서울역 역사 내 화재 및 지하철 탈선 사고 상황을 접수한 재난구조부대는 사전에 확보한 서울역 역사 3D 실내공간정보를 활용해 사고 현장을 분석하며 신속히 현장으로 향했다. 이어 재난구조부대는 붕괴된 건물의 잔해물로 인해 건물 및 지하철 내부로의 진입이 제한되자, 절단기와 유압 장비를 활용해 통로를 개척한 뒤 내부 탐색을 벌이는 동시에 드론을 활용해 건물 옥상 등에 대한 외부탐색을 병행했다.

또한 지하철 내부에서 대피하지 못한 채 무의식 상태인 구조가 필요한 지하철 이용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와 유관 기관이 지난 22일 합동으로 진행한 재난구조부대 야외기동훈련(FTX)에서 재난구조부대 요원들이 건물 내 고립된 시민을 레펠 기술을 활용해 구조하고 있다. 부대 제공

자에 대해 호흡기 착용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건물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구조를 요청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에어 매트, 레펠, 구조용 바스켓을 활용해 구조활동을 펼쳤다. 이후 서울강서소방서·보건소의 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을 끝으로 FTX는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특전사 독수리부대 최성식(소령) 재난구

조부대장은 “유관 기관과 함께한 이번 재난구조부대 FTX를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현장에서 세계 최정예 대체불가 특전사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기자